

“미륵도량 금산사, 유식종찰 전통 살려야”

‘금산사와 한국의 유식사상’ 4월 18일 학술세미나에서

미륵신앙의 중심지였던 금산사가 유식 사상을 펼친 유가종찰이었으며 이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김재 금산사(주지 성우)와 중앙승가대(총장 원행)가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 ‘금산사와 한국의 유식사상’ 학술세미나에서 김성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금산사와 유식사상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성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고려시대 금산사 역사와 유가종찰로서의 사적’ 발표를 통해 “금산사는 7세기 후반부터 유식학을 연찬하는 도량으로 역사를 지니고 있다. 7세기 후반 동아시아 대표 유식학자인 의적 스님이 주석했으며 14세기에는 해원과 그 문도들이 유식학을 연찬했다”며 “한국 사찰 역사에 특정 불교학을 오랫동안 전승 유지시킨 곳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금산사는 학문만을 연찬한 도량이 아니라 종찰로서 역할을 했다”며 “금산사는 11세기 유가종단의 종통을 확립해 이를 신앙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대규모 중창불사가 일어났다. 또 광교원을 설치해 총 32부 353권에 달하는 광범위한 유식전적을 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금산사의 방등계단은 유가종찰로서 위상을 상징하는 시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산사의 유가종 종찰로서의 역할이 현재 퇴색된 이유가 조선 후기의 선

교양종 양립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1424년 조선은 강제적으로 불교종파를 통폐합시켜 선교양종 두 개의 종파만 남겨놓았으며 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결국 조선 후기에는 불교계는 공식적인 종단을 보유할 수 없었다”며 “이를 두고 통불교로 운운하는 것은 역사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금산사의 유가종 전통을 되살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개최

조선시대 선교양종 통합되며 퇴색

유가서적 간행 등 중심 역할 맡아

김 교수는 “금산사에는 참회, 계율, 미륵, 유식이라는 상징이 뚜렷히 빛난다. 유식학을 연찬하는 연구기관을 만들고, 금산사 대중이 유식 전적을 간행하며, 유가종 스님들의 높은 계행을 계승해 새로운 불교 윤리를 전파하는 일은 잊혀진 훌륭한 전통을 되살리는 ‘복원’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의적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모로 시게키 日 하나조노대 교수가 ‘의적과 신라 유식사상’을, 박광연 동국대 교수가 ‘무량수경술기’를 통해 본 의적의 사상경향



미륵사 방등계단(사진 위). 이 계단은 수계법회를 거행하던 장소로, 방등이란 계율의 정신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4월 18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5명의 학자들이 유식사상과 금산사의 관계를 고찰했다.

을,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금산사 광교원과 유식계 교양의 간행’을 각각 발표했다.

최연식 동국대 교수는 “금산사에서 활발히 활동한 의적 스님의 유식사상 연구가 본

격진행돼야 한다”며 “국내 유식사상과 후대 신라유식사상에 미친 그의 영향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l.com

‘남 인도 불교의 역사와 현황’ 심포지엄

동국대 선연구소, 4월 24일 존 사무엘 아시아연구소장 초청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소장 진월)는 4월 24일 동국대 백주년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존 사무엘 인도 첸나이 아시아연구소장을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국대 선연구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석존의 나라 인도의 학자와 함께 학문적 자족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한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존 사무엘 소장의 ‘남 인도 불교의 역사와 현황: 칸치포람(보리달마의 고향)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함께 진월 스님의 ‘도의 달마의 시월적 선사상 비교’ 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동국대 선 연구소장 진월 스님은 “칸치포람은 보리달마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으로, 선을 중시하는 한국불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인연지”라며 “한국에 전해진 선법의 원류와 경로를 검토해 보는 일은 역사를 되새기며 문화유산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국대 선연구소와 인도 첸나이 아시아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 세미나 ‘중국 전법정신과 전법론’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5월 10일 오후 2시 서울 불광사 교유원에서 ‘중국 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을 주제로 불광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불교 전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 대거 발표된다.

먼저 △최은영 금강대HK교수는 ‘역경과 찬술을 통한 전법’을 통해 인도와 서역의 다양한 경론을 1000년에 걸쳐 번역하

고, 논소를 찬술한 중국불교의 전법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석갑암 금강대HK교수의 ‘변문을 통한 대중전법’ △이병욱 고려대 외래교수의 ‘종파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 △김성순 금강대HK연구교수의 ‘수행결사를 통한 전법’ △이기은 동국대 불문영교수의 ‘위의경과 전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울진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 학술대회

울진 불영사(주지 일운)는 5월 2일 울진 엑스포공원 회의실에서 ‘울진 천축산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여서 스님의 ‘불영사의 역사와 성보’, △오세덕 동국대 경주박물

관 학예연구원의 ‘불영사의 건축’, 정명희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사의 ‘불영사의 회화’, 송은석 동국대 교수의 ‘불영사의 조각’, 최용천 동국대 교수의 ‘불영사의 공예’를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불교영문학술지 IJBTC 원고 모집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한국불교 정토신앙과 관음사상’ 주제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는 영문불교학술지인 IJBTC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제23집에 실릴 원고를 모집한다. 모집 원고 주제는 ‘한국불교의 정토신앙과 관음사상’으로 투고 마감은 7월 5일까지다. 원어린이 아닌 투고자의 경우 원어문의 감수확인이 필요하다.

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iabtc@dreamwiz.com)로 가능하며 23집은 9월에 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학회 창립10주년을 기념해 발간

한 IJBTC vol.22에는 ‘타력신앙과 불교 수행’을 주제로 3편의 기획논문 등 총 8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학술지는 세계 150여개의 주요 대학 도서관과 학술기관, 그리고 국내 도서관과 주요 연구소에 보내지고 있다. 인도, 미국, 태국, 대만, 일본, 호주,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스리랑카 등 11개국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불교문화사상사와 관련된 연구 활동과 발표회 및 강연회, 영문학술지 발간을 전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공동체 의식 확산 통해 자살 방지 가능”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춘계토론회서 주장

“자살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타인의 생명도 경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교계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살을 막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중앙승가대 강사)(사진)는 “최근 늘어나는 자살에 대해 불교계의 대응은 개인적 차원의 수행과 상담활동에 집중돼 있다”며 “보다 근원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불교계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생과사의 갈림길과 불교계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먼저 불교사상의 자살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회과학적 한계를 불교의

연기세계관으로 인식 전환

생명존중 주제 범회 등 강조

연기론적 세계관과 공업, 불이, 자비 등의 사상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이를 통해 개개인과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자살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인식 전환을 유도 할 수 있다”며 “불교계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수행결사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범회 설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예방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인 ‘김포지역 자살 현황과 대책’을 진행한 청아 스님(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은 “중앙승가대가 위치한 김포시를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



한 결과 자살 시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해 유가족 자조모임 등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살자 이외에도 모방자살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보도 자율규정 등 미디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 최종남 중앙승가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최훈동 김포 한벌정신병원장, 강희숙 김포시 보건소보건사업과장 등이 나서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노덕현 기자

정토학회 <정토학연구>

제 21집 원고 모집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택)는 5월 12일까지 <정토학연구> 제21집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모집 분야는 정토, 신앙, 의례, 문화 중심의 불교관련으로 A4용지 15~18매에 영문초록과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10개, 영문 키워드 10개, 참고문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학회지 수록여부는 학회의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게재 여부는 추후에 통보된다. 제출된 원고와 디스켓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의 분량 및 투고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토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정토학회는 <정토학연구>를 내년 2월과 7월 내고 있다. 제21집은 7월 경 나을 예정이다. 한국정토학회는 “신진 학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2)581-3137

노덕현 기자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대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운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짠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경기도 화성시 떡고고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